

# ‘천연벌꿀’ 둔갑한 ‘설탕꿀’ 주의하세요

벌에 설탕물 먹여 생산 ‘사양벌꿀’  
제품 의무 표시 관련 규정 없어  
소비자·양봉농가 피해 잇따라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생산한 벌꿀인 사양벌꿀 제품 일부가 ‘설탕꿀’이라고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시장에서 파는 13개 잡화꿀 제품의 품질을 평가한 결과 사양벌꿀로 확인된 2개 제품이 광고와 표시사항에 사양벌꿀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규상 ‘100% 천연벌꿀이 아닌 경우, 천연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유명 무실한 탓에 설탕꿀이 천연꿀 이름을 달고 팔리고 있어 양심 양봉농가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비자시민모임 평가 결과 지리산뽕사과토종꿀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향로봉벌꿀과 지리산토봉꿀은 천연벌꿀(꽃꿀)과 사양벌꿀을 구별하는 탄소동위원소비가 각각 -13.89%, -13.59%로 사양벌꿀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1개 제품은 탄소동위원소비가 -22% 이하인 천연벌꿀이었다. 천연벌꿀은 꿀벌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해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한 꿀이다.

사양벌꿀 2개 제품은 사양벌꿀이라는 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에 ‘순수한 자연 벌꿀’·‘공해가 없는 깊은 곳에서 토종꿀을 채취’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향로봉벌꿀은 100g당 991원으로 천연벌꿀보다 저렴하지만, 지리산토봉꿀은 100g당 2233원으로 천연벌꿀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사양벌꿀 식품유형을 ‘벌꿀’(사양벌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율표시기준이어서 업체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소비자가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오



소비자시민모임은 벌꿀을 살 때 제품에 식품 정보를 알려주는 표시가 없거나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사양벌꿀 여부를 꼭 확인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할 가능성이 있어 제조·판매업체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소비자시민모임은 강조했다.

한편 클로버꿀(제조 스텐미비 자기가 주식회사, 수입 꽃샘식품)은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검출량(133.07mg/kg)이 기준치(80mg/kg)를 초과했다.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벌꿀의 처리, 가공, 저장 중에 생기는 품질저하 지표 성분이다.

축산품질평가원의 꿀 등급판정 기준을 반영해 품질 등급을 평가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중 1+등급은 없었

며 1등급과 2등급인 제품이 각각 6개, 4개였다.

품질 등급이 같아도 가격은 제각각이었다. 북부농업협동조합에서 제조(소분)한 2등급 제품인 하성잡화꿀과 농심산심야생꽃꿀은 100g당 가격이 각각 3290원, 1905원으로 약 1.7배였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벌꿀을 살 때 식품 유형과 원재료 표시를 꼼꼼히 살피고, 제품에 식품 정보를 알려주는 표시가 없거나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사양벌꿀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 ■ 수입 완구·유아용품·전기용품 점검해보니

### 안전기준 불합격 제품 무더기 발견 중국산 의류선 기준치 초과 납 검출

한국에 수입되는 완구·유아용품과 전기용품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대량으로 적발됐다. 중국산 아동 의류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당국이 리콜 조치를 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이들 수입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관리 협업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불합·불량제품 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합·불량제품의 수량은 총 18만개에 이르며, 모두 중국에서 제조된 물건으로 확인됐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등 불량제품이 55건으로 약 10만6000여개, 품질이 좋지 않은 불량제품이 12건으로 7만3000여개에 달했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는 조명기구가 총 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최초 인증을 받을 때와 다른 부품을 썼거나 전기감도, 절연내역이 기준치에 모자라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국내에 이미 유통된 유아용 ‘메

탈모직원피스’의 경우 납 함유량 기준치인 90mg/kg의 25배 이상인 2263mg/kg이 검출되는 등 아동의류 2건에서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구의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KC) 표시를 위반한 동물 분제인형 등 13건이 적발됐다.

한 유아 식탁의자 제품에서는 다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옆으로 넘어지는 결함이 발견되기도 했다.

안전세관은 통관 전에 적발된 제품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판매처에 반송했으며, 통관이 된 것들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해 목록을 공개하고 리콜 조치를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그동안은 세관에서 수입승인서만 확인했기 때문에 서류위조 및 부품 불법교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검사를 확대해 통관단계에서 불합·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자동차 ‘시동꺼짐’ 현상 속출 교환·환급 조치 제대로 안돼

#### 3년간 702건 발생

자동차 운행 중 갑작스러운 ‘시동 꺼짐’ 현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리를 해도 차량 상태가 나아지지 않거나, 교환·환급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2013년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동차 시동 꺼짐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총 702건이다.

이 가운데 국내 제조사 차량은 기아차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186건), 한국GM(116건), 르노삼성(79건), 쌍용차(1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차종별로는 기아 쏘렌토R(69건), 현대 싼타페(52건), 르노삼성 SM3(39건), 기아 모닝(31건), 기아 뉴 스포티지(29건) 순이었다. 수입차는 제조사별로 BMW 15건, 폭스바겐 14건, 메르세데스-벤츠 9건, 크라이슬러·재규어 랜드로버·볼보 각 5건이었다. 차종별로는 폭스바겐 파사트 6건, BMW 쿠파·벤츠

ML280 각 4건 등이었다.

시동 꺼짐 현상이 최초 발생한 주행거리 1만km 미만인 202건(28.8%)으로 가장 많았으며 1만km~2만km 96건(13.7%), 2만km~3만km 59건(8.4%)이었다.

정비비용이 있는 차량 483대의 정비부위는 전자계통(40.8%), 연료계통(32.7%), 전기계통(18.2%), 엔진계통(6.2%) 순으로 많았다.

또 시동 꺼짐 피해를 본 128명을 조사한 결과 56.2%가 처음 시동 꺼짐이 발생한 시기가 출고 2년 미만이라고 답했다.

60.2%가 가속 시 시동 꺼짐을 경험했고, 39.1%는 시동 꺼짐으로 4회 이상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46.1%는 수리 후에도 시동 꺼짐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차량 교환이나 환급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4.7%에 그쳐 자동차 중대 결함에 대한 교환·환급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자동차 운행 중 시동이 꺼지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의 기능이 떨어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 가정용 진공청소기 제품따라 소음·흡입력 ‘천차만별’

소비자원, 14개 제품 품질·안전성 평가  
소음 시험 5개 제품만 ‘매우 우수’  
흡입력은 최대 2.4배까지 차이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진공청소기가 제품에 따라 소음, 흡입력 등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파는 진공청소기 가운데 보급형 8종과 기능이 다양한 고급형 6종 등 제품 총 14종의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청소 시 조용한지를 평가하는 소음 시험에서 5개 제품이 ‘매우 우수’, 4개 제품이 ‘우수’, 5개 제품이 각각 ‘보통’ 등급을 받았다.

먼지 등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최대 흡입력은 최저 172W(로벤타 RO7824KO), 최고 422W(삼성전자 VC42LLDUCBN)로 제품별로 최대 2.4배 차이가 났다. 다만 172W 제품도 가정에서 마루나 장판 바닥을 청소

구분	브랜드(모델명)	최대흡입력	소음	미세먼지흡입량	대당 가격
보급형	덕트데빌(DDC88-QP1K)	228	보통	보통	11만9990
	동부대우전자(DOR-CB72S)	310	-	-	13만9750
	로벤타(RO7824KO)	172	매우우수	매우우수	19만5020
	삼성전자(VC42LLDUCBN)	422	우수	우수	14만1140
	필립스(FC8474)	393	보통	매우우수	12만9000
	휴버(HC87-PSK)	266	-	보통	12만7990
	AEG(ALUX1851)	342	-	우수	18만9000
	LG전자(VC2310FNA)	372	우수	-	15만9080
고급형	다이슨(DC46)	190	-	매우우수	67만5000
	필레(S8320)	357	매우우수	-	55만4490
	삼성전자(VC77F79LHCD)	401	-	-	57만1340
	일렉트로룩스(ZUF4206DEL)	300	우수	-	51만5710
	지멘스(VS25XTRM11)	380	매우우수	-	54만7810
	LG전자(VK8250LYNM)	361	-	우수	44만

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충분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미세먼지방출량 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를 적게 방출한 7개 제품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우수’ 제품이 5개, ‘보통’ 제품이 3개였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대부분 제품이 표시등급과 비교해 같거나 높았다. 다만 덕트데빌 DDC88-QP1K

는 에너지 소비효율 표시값은 22.18%인데 실제 측정값이 17.69%여서 기준(표시값의 90% 이상)에 부적합했다.

5개 제품은 제품 표면이나 포장에 흡입력과 소비전력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표시해 소비자들의 오인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전력과 흡입력은 같은 단위 기호(W)를 사용하는 데 그 의미는 다르다. 소비전력의 W는 사용 전력, 흡입력의 W는 흡입하는 힘을 뜻한다.

가격은 온라인을 최저가 기준 고급형 제품인 다이슨 DC46이 67만5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보급형인 덕트데빌 DDC88-QP1K가 11만6천9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모든 제품이 누전·감전 위험성, 평상온도 상승, 이상운전, 구조, 외관에 이상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진공청소기에 붙어 있는 라벨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미세먼지방출량 등의 정보가 있으므로 구매 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착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위해  
직접 검증하다!

# 먹거리 X파일

매주 금요일 밤 11시

MC 김진 채널A기자

http://tv.ichannela.com/culture/xfile  
02 2020 3333~4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